

# “V+個+A”구문 구조

崔圭鉢\*

<목 차>

1. 서론
2. “個”의 문법적 성질
3. “個”와 “得” 비교
4. “V+個+A”구문구조
5. 결론

## 1. 서론

現代漢語(이하 中國語라 칭함)의 補語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이루어 졌다. 보어의 종류·의미관계·빈어문제 등을 교학하면서, “說翻臉了” “買上當了” “唱走調了” “唱歌走調了” “說漏了嘴”와 같은 구문의 의미구조, 즉 술어동사가 빈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어가 자신의 빈어를 갖고 있는 것과, “說話翻臉了”는 非文이고 “買車輛上當了”는 통용되고, 動詞複寫에 의한 “說話說翻臉了” “說話說漏了嘴”는 가능한 점과, “個”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個~” “~了個~” “~他(它)個~” “~個沒~” “~個不~” 등 보어구문에 의문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1981)은 이러한 보어구문형식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複合語(Compound)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복합어를 명사복합어(Nominal Compound) 동사복합어(Verbal Compound) 주술복합어(Subject-Predicate Compound) 동빈복합어(Verb-Object Compound) 등으로 분류했다. 위 복합어 가운데에서, “V1+V2”로 구성되는 동사복합어는 결과동사복합어(Resultative Verb Compound)와 병렬동사복합어(Parallel

\* 高麗大 中文科 副教授

Verb Compound)로 나누었는데, 결과동사복합어인 “V1+V2”와 “V1+得+V2” 구문의 문형·의미·화용 방면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1992)와 같은 책이 출판되기도 했다. 중국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V1+V2”와 “V1+得+V2” 구문형식의 보어구문은 그런대로 친숙하게 사용하지만, “V+個+A”나 “V+個+X”(X는 동사·동사구·형용사구·成語 등을 가리킴) 구문형식은 거의 생소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구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V+個+A”구문을 이론적 분석보단 화용론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2. “個”의 문법적 자질

“V+個+N”, “V+個+V/A” 구문에서 “個”의 문법(품사)적 자질에 대하여 양사나 보어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朱德熙(1981)는 “V+個+V/A”의 “個”는 量詞로 쓰여, 뒷부분의 동사/형용사를 體詞性構文으로 변화시켜서, 程度賓語가 된다 했고, 邵敬敏(1984)은 “個”는 이미 虛化하여 구체적으로 양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個” 뒤 성분을 實詞化하는 어법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V+個+N”구문에서도 “個”를 “個1” “個2”로 나누어, 量詞와 非量詞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예문을 나누어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V+個1+N”

裝個電燈	裝上個電燈
挖個洞	挖個大洞
問個問題	問不問個問題
抽個煙	抽着個煙
上個大學	上過個大學

“V+個2+N”

喝個茶

- 踢個球
- 加個油
- 打個遊擊
- 招個生

위의 “個1”은 양사로 쓰인 예인데, 본래의 구문에 보어성분이나 시태조사들을 부가할 수 있고, 한정어로 빈어를 수식할 수도 있고, “問不問個問題”나 “聽個唱片不聽”처럼 “V不V” “V...不V” 구문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個2”는 非量詞 즉 助詞로 쓰인 것으로, “個1”과 같이 보어성분이나 시태조사를 붙일 수도 없으며, “V不V” “V...不V” 구문형식도 취할 수 없다. 이와 같은 “V+個+N” 구문의 “個1”과 “個2”의 용법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1)</sup>.

비교항목/ 구문형식	V個1N	V個2N
V+ 보어	+	-
한정어 + N	+	-
V不V, V...不V	+	-
V+着/過	+	-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 “V+個+N” 구문에서, “個”의 문법적 자질에 따라 위와 같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V+個+A/V”에서의 “個”도 “V+個+N” 구문의 “個”의 문법적 자질처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V+個+V/A”에서 “個”를 “V+個+N”의 “個”처럼 양사로 보아 그 뒷 부분을 賓語로도 볼 수 있으나, 補語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구문이 있으므로, 또 다른 견해를 서술할 필요성이 있다.

“V+個+V/A”의 “個”를 助詞로 보는 견해를 갖는 사람으로는, 呂叔湘·王力·郭紹虞 등을 들 수 있다. 邵敬敏(1984)은 “V+個+V/A” 구문을 내부구조에 따라 甲類(吃個新鮮, 喜歡個快等)·乙類(吃個痛快, 跑個快等) 둘로 나누고서, 甲類의 “個+A/V”는 빈어로 쓰이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乙類의 “個”

1) 李煒 (1992) <V個N結構> 《語法研究和探索6》 158-162쪽.

에 대해서는 量詞 또는 助詞로 보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sup>2)</sup>.

呂叔湘(1984)은 “個”를 聯接詞로 간주하면서,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보어구문을 이끄는 “得”와 비슷하다 했고, 王力(1985)은 허사의 성질을 띠고서, 연결 도구로 쓰이며, 극도의 形容語를 문장 뒤에 붙여서 과장의 의미를 표시한다고 했다. 郭紹虞(1979)는 “吃個飽”의 “個”는 조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다. 《現代漢語八百詞》의 “個”에 대한 해석 중 동작과 관련한 항목 c) “動+個+賓”과 d) “動+個+形/動”의 예문과 邵敬敏(1984)의 甲類(喜歡個快: 빠른 것을 좋아하다)와 비교하여 보면, 감류는 구문구조는 d)와 같으나, 해석 의미는 c)와 같으므로 c)와 d)의 중간적인 구문이라 할 수 있다. 邵敬敏(1984)은 甲類에 속하는 “喜歡個快” “吃個新鮮”의 “個+形/動”은 體詞化되어서 “喜歡” “吃”의 賓語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邵는 또 “\*三號房間一個干干淨淨” 예를 들어 “個+動/形”이 술어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동사 뒤에 출현하여 體詞的으로 쓰여 賓語가 된다면, “V+個+動/形”은 동보구문이 아니라 동빈구문이라 주장하며 “個”를 量詞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甲類의 “個”를 체사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류의 예문에서 “個”를 생략하여 보면 “\*喜歡快” “\*吃新鮮”은 모두 비문이 되므로 “個”의 문법적 자질을 助詞로 보아야 한다.

“吃個飽”에서 “個” 역시 “一個饅頭” “兩個饅頭”의 “個”와 같이 수량과 관계되는 의미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吃個飽”의 “個”는 “一個飽” “兩個飽”의 의미가 아니고 “飽”의 정도 상태를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조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個”의 문법적 자질 또는 품사의 성질을 서술한 것과는 다소 다르게, 張先亮(1998)은 “個”를 個1과 個2 분류한 후, 個1은 量詞 個2는 助詞라 하며, 음운·어휘적 의미·어휘의 구성력·교환력 등의 관점에서 個2가 조사인 이유를 아래처럼 서술한다.

2) 감류와 율류를 동일한 “V+個+V/A”구문 형식으로 간주해야 하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구문형식으로는 동일하나 감류는 명사적(빈어)으로 율류는 형용사적(보어)으로 쓰이므로, “V+個+N”의 “個”처럼 “個1” “個2”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차후에 논의하겠음.

1. 음운상 “個2”는 去聲을 읽지 않는다. “說個明白” “問個清楚”에서 “個”는 경성으로 읽는다.
2. 個2는 어휘적인 의미는 없고, 단지 어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 個1처럼 數詞와 조합을 이룰 수 없어서 “問一個清楚” “問二個清楚” “問三個清楚”라 말하지 않는다.
3. 個2는 다른 성분과 결합할 수 없다. “說個明白”의 “個”는 앞쪽의 “說”와도 결합하지 않고 뒤쪽의 “明白”과도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說個” “個明白”란 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
4. 個2는 구조조사 “得”에 교체될 수 있다. “說個明白”를 “說得明白”라 변환해도 의미나 구조상의 변화는 없다.

張先亮은 위와 같이 서술하면서도 “打一個半死”라는 예를 들며 “個”의 양사적인 자질도 부정하지 않고, 양사와 조사의 성질이 병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V+個+V/A”의 “個”에 대하여 양사 또는 조사의 성질이 있음을 인정하므로, 통시적으로 종합하여 말하면, 양사가 허화과정을 거쳐서 실사적인 의미를 잃고, 단지 문법적 작용을 하는 조사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 3. “個”와 “得” 비교

李臨定の《現代漢語句型》에서 “得”句型은 31개로 분류하는데, 여기에서는 “個”와 “得”으로 구성되는 구문의 차이점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遊汝杰(1983)이 “個”가 補語標志로 쓰인 용법을 4가지로 분류한 것과, 통사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V+得+個+X”(X: 형용사·동사·형용사구·동사구·성어 등)를 추가하면, 아래와 같이 5가지 “個”구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V+個+X(吃個飽)
- ② V+了+個+X(吃了個飽)
- ③ V+他/它+個+X(吃他個飽)
- ④ V+個+不/沒+X(吃個不停)

⑤ V+得+個+X(吃得個飽)

V+個+X(吃個飽) 같은 구문형식에서는 “得”로 구성되는 보어구문과 차이가 없지만 그 나머지 구문과 비교하면서 두 구문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得”로 구성되는 구문의 술어는 동사·형용사 모두 가능하나 “個”구문에서는 반드시 동사만이 술어가 될 수 있고 형용사는 술어가 될 수 없다.  
 “個”구문에 쓰이는 술어동사는 “打聽個清楚”처럼 2음절단어도 쓰이나 주로 단음절 단어가 일반적이다.
2. “得”구문은 보어위치에 부사가 올 수 있으나 “個”구문에서는 불가능하다.
3. “個”구문에서는 “個”와 보어 사이에 “了”·“他”를 삽입하거나, “個”앞에 “得”를 붙일 수 있으나, “得”구문에서는 불가능하고, 아래처럼 “他”를 “得”의 뒤와 보어 사이에 두어야 한다<sup>3)</sup>. “得個”다음에는 시대조사 “了”를 쓸 수 없다.

基本式	A 把他打個半死	B 把他打得半死
變換式	A1 把他打了個半死	B1 *把他打了得半死
	A2 打他個半死	B2 *打他得半死
	A3 打個他半死	B3 把得他半死
	A4 把他打得個半死	B4 *把他打得得半死

4. “得”구문에서는 “玩得痛快嗎?”가 가능하나 “個”구문에서는 “玩個痛快嗎?”가 불가능하다.
5. “得”구문에서는 “看得不清楚”가 가능하나 “看個不清楚”는 불가능하다.
6. “跑得出來” “走得進去”같은 “得”구문은 상용되나, “個”구문에서는 보어구문에 방향보어 성분이 출현할 수 없다. “跑個出來”, “走個進去”가운데의 “個”의 뒤 성분인 “出來”는 보어성분이 아니며, “個”는 施事者인 “一個”에서 수사 “一”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跑個出來”, “走個進去”는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오다”, “(어떤) 한 사람이 걸어 들어가다”란 존현문 형식이다).

3) 邵敬敏(1984) 504쪽.

4) 游汝杰(1983) 449쪽.

### 4. "V+個+A"구문구조

앞에서도 서술한 것처럼, "V+個+X"구문형식에서 "X"는 형용사(구)·동사(구)·성어 등을 가리키는데, 본 논문에서는 "X"가 형용사로 구성되는 "V+個+A"구문구조를 통사 의미 화용론적 관점에서 서술하려 한다. 우선 임의의 V와 A가 "V+A(了)" "V+個+A" "V+了+個+A" "V+得+A" "V+了+A" "V+了+才+A" 유형의 구문을 구성하는 예문을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다.

"V+A(了)"	"V+個+A"	"V+了+個+A"	"V+得+A"	"V+了+A"	"V+了+才+A"
吃快了	*吃個快	*吃了個快	吃得快	*吃了快	*吃了才快
吃飽了	吃個飽	吃了個飽	吃得飽	吃了飽	吃了才飽
喝醉了	喝個醉	喝了個醉	喝得醉	*喝了醉	喝了才醉
玩痛快了	玩個痛快	玩了個痛快	玩得痛快	*玩了痛快	玩了才痛快
看夠了	看個夠	看了個夠	看得夠	*看了夠	看了才夠
喝完了	*喝個完 <sup>5)</sup>	*喝了個完	?喝得完	*喝了完	*喝了才完
唱完了	*唱個完	*唱了個完	?唱得完	*唱了完	*唱了才完
想完了	*想個完	*想了個完	?想得完	*想了完	*想了才完
想夠了	想個夠	想了個夠	想得夠	*想了夠	想了才夠
跑快了	?跑個快 <sup>6)</sup>	?跑了個快	跑得快	*跑了快	*跑了才快
跑痛快了	跑個痛快	跑了個痛快	跑得痛快	*跑了痛快	跑了才痛快
學好了	*學個好	*學了個好	學得好	?學了好	?學了才好
學明白了	學個明白	學了個明白	學得明白	*學了明白	學了才明白
問明白了	問個明白	問了個明白	問得明白	*問了明白	問了才明白
討論清楚了	討論個清楚	討論了個清楚	討論得清楚	*討論了清楚	討論了才清楚
弄清楚了	弄個清楚	弄了個清楚	弄得清楚	*弄了清楚	弄了才清楚
喝舒服了	喝個舒服	喝了個舒服	喝得舒服	*喝了舒服	喝了才舒服

5) "完"의 품사는 형용사와 동사인데,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모두가 동사적 용법이다. 형용사만을 다룬다면 "完"을 예문으로 든 이유는 구문형식을 비교해서 비문이 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다.

6) 邵敏敏(1984)은 "跑個快"를 예문으로 들었는데, 중국인에게 검증해본 결과, 일반 대화에 쓴다는 사람과 쓰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서 ? 표시를 했음.

동사와 형용사를 결합하여 위와 같은 구문형식에 맞는 예문을 만들었는데, “V+個+A” 구문형식이 비문이 되는 예문은 “V+了+才+A” 구문형식의 예문이 비문이거나? 부호가 붙은 예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증법에 의하여 “V+個+A” 구문형식이 생성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V+A(了)” “V+了+才+A” 구문의 술어와 보어의 의미관계가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V+A(了)” “V+得+A” 구문은 성립하나, 비문이 되는 “V+個+A” “V+了+個+A” “V+了+A” “V+了+才+A” 구문형식의 “\*吃個快” “\*吃了個快”는 “快吃(빨리 먹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先吃→後快” 통사구조에 쓰였으나, “先吃→後快(먼저 먹고 그런 후에 빠르다)”말이 화용론상 아무런 의미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비문이 되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跑個快” 예문을 邵敬敏(1984)와 朱德熙(1982) 등은 합당한 예문으로 들고 있는데, 나는 “跑了個快”와 같이 비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sup>7)</sup>. 이러한 견해를 지지할 수 있는 방증으로는 위에 든 몇 십 개 예문 검증으로 속단을 내리는 논리의 비약을 면할 수는 없지만, “~完”으로 구성된 예문을 들 수 있다. 이 “X+得+完” 예문은 가능의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을 뿐 결과의 의미가 없으므로, 인과관계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V+A(了)” 구문형식만이 합당한 예문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문 모두가 비문인 것으로 방증을 삼을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完”이 “V+個+A” 구문형식에 쓰이지 못했지만, “完”이 “沒”과 결합하여 “V+了+個+沒完” 구문형식에는 아래 예문처럼 쓰인다.

笑個沒完	笑了個沒完	笑起來沒完
哭個沒完	哭了個沒完	哭起來沒完
罵個沒完	罵了個沒完	罵起來沒完

7) “先 動作 → 後 結果”란 의미관계는 인과관계가 있는 결과보어구문에 적용될 수 있으나, “跑個快”와 같이 “快+跑”의 의미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보어구문에는 “跑個快”의 비문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V+了+才+A” 구문 성립 여부를 통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跑個快”를 비문으로 간주한다 했으나, “跑個快”의 사용 여부는 남북 방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V+了+A”구문은 예외 없이 모두가 비문인데, “?學了好”는 “學好了”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 ?표를 붙였다. “學了好”에서 “好”의 용법은 “跟好人相處,學好了他的好處(좋은 사람과 지내면서 그의 좋은 점을 잘 배우다)”의 명사적으로 쓰인 빈어이고, “學了好”의 의미는 “배워두면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점을 배우다”라는 것이다. 이것과 상대적인 것인 “學了壞”도 “배워두면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배우다”란 뜻으로 쓰이니, “V+了+A” 구문형식은 근본적으로 비문형식일 뿐만 아니라, “V+A(了)”구문형식과는 아무런 변환관계도 없다.

이제 “~够” “~飽” “~痛快”가 “吃” “玩” “喝” “唱” “睡”와 결합하여 만들 수 있는 “V+個+A” “V+個+沒+A” “V+個+它+A” “V+了+個+A” 기타 6개 구문유형을 보자.

夠 :

吃個夠	吃個沒夠	吃它個夠	吃了個夠	吃起來沒夠
玩個夠	玩個沒夠	玩它個夠	玩了個夠	玩起來沒夠
喝個夠	喝個沒夠	喝它個夠	喝了個夠	喝起來沒夠
唱個夠	唱個沒夠	唱它個夠	唱了個夠	唱起來沒夠
睡個夠	睡個沒夠	睡它個夠	睡了個夠	睡起來沒夠
吃夠了	吃得夠了	吃得不夠	*吃得沒夠	沒吃夠
玩夠了	玩得夠了	玩得不夠	*玩得沒夠	沒玩夠
喝夠了	喝得夠了	喝得不夠	*喝得沒夠	沒喝夠
唱夠了	唱得夠了	唱得不夠	*唱得沒夠	沒唱夠
睡夠了	睡得夠了	睡得不夠	*睡得沒夠	沒睡夠

飽 :

吃個飽	*吃個沒飽	吃它個飽	吃了個飽	?吃起來沒飽
*玩個飽	*玩個沒飽	*玩它個飽	*玩了個飽	*玩起來沒飽
喝個飽	*喝個沒飽	喝它個飽	喝了個飽	?喝起來沒飽
*唱個飽	*唱個沒飽	*唱它個飽	*唱了個飽	*唱起來沒飽
*睡個飽	*睡個沒飽	*睡它個飽	*睡了個飽	*睡起來沒飽

吃飽了	吃得飽	吃得不飽	*吃得沒飽	沒吃飽
*玩飽了	*玩得飽	*玩得不飽	*玩得沒飽	*沒玩飽
喝飽了	喝得飽	喝得不飽	*喝得沒飽	沒喝飽
*唱飽了	*唱得飽	*唱得不飽	*唱得沒飽	*沒唱飽
*睡飽了	*睡得飽	*睡得不飽	*睡得沒飽	*沒睡飽

痛快：

吃個痛快	*吃個沒痛快	吃它個痛快	吃了個痛快	*吃起來沒痛快
玩個痛快	*玩個沒痛快	玩它個痛快	玩了個痛快	*玩起來沒痛快
喝個痛快	*喝個沒痛快	喝它個痛快	喝了個痛快	*喝起來沒痛快
睡個痛快	*睡個沒痛快	睡它個痛快	睡了個痛快	*睡起來沒痛快
唱個痛快	*唱個沒痛快	唱它個痛快	唱了個痛快	*唱起來沒痛快

吃痛快了	吃得痛快(了)	吃得不痛快	*吃得沒痛快	沒吃痛快
玩痛快了	玩得痛快(了)	玩得不痛快	*玩得沒痛快	沒玩痛快
喝痛快了	喝得痛快(了)	喝得不痛快	*喝得沒痛快	沒喝痛快
睡痛快了	睡得痛快(了)	睡得不痛快	*睡得沒痛快	沒睡痛快
唱痛快了	唱得痛快(了)	唱得不痛快	*唱得沒痛快	沒唱痛快

위에 든 각 구문의 예문은 형태에 따른 의미는 차이가 있고,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 구문형식이 다른 것이다. V와 A가 서로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으면, “~飽”의 예문에서 보듯이 “V+個+A” “V+個+沒+A” “V+個+它+A” “V+了+個+A” 기타 6개 구문유형이 비문임을 알 수 있다. “V+個+沒+A”에서의 “個”를 “得”으로 대체한 “V+得+沒+A”구문도 모두 비문이 되는 것을 보면, 《現代漢語八百詞》에서 “個”와 “得”가 비슷하다 했지만, 구문 생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個+A” “V+得+A” 두 구문의 차이에 대하여, 游汝杰(1983)은 “V+個+A” 구문은 명령·권유의 語氣가 있고, 바램을 표시하나 “V+得+A”구문이 갖고 있는 결과의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邵敬敏(1984)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서 “個”의 어법적 기능이 권유·명령·바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문형식과 時態에서 원인을 밝혀야한다고 한다.

- (4.1) 讓他玩兒個痛快,再做作業(그를 화끈하게 놀게하고 나서 일하게 하자)  
 (4.2) 這次他可真是玩兒個痛快(그는 이번에는 말로 화끈하게 놀았군)

邵敬敏의 설명처럼 (4.1)은 명령 청유의 어기를 갖고 있고, (4.2)는 결과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V+個+A’는 일반적으로 어기조사 ‘吧’와 같이 쓰여 명령 권유의 상황에서 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V+個+沒+A’구문은 동사의 행위나 동작은 이미 충분한 결과 상태에 있으나 행위 동작을 계속하려는 상황에 쓰인다. ‘吃個沒夠’는 식탐 등이 심해서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도 계속 먹으려는 상황에 쓰인다. 그렇다면 ‘吃個沒夠’는 잘 쓰이는 말인데, ‘\*吃個沒飽’ ‘\*吃個沒痛快’는 왜 비문이 될까?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많은 예문의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보어로 쓰인 형용사의 정도 상태 결과에 대한 주관과 객관의 판단 차이로 생각한다. ‘吃個沒夠’에서는 이미 족한데도 계속 먹으려 하는 행위는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성립한다. 그러나 ‘\*吃個沒飽’ ‘\*吃個沒痛快’는 이미 행위나 행동 후에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행위 동작을 하려 한다면, 다시 말하여서 이미 배가 부르거나 통쾌한 상태인데 계속해서 먹으려 한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비정상이므로 비문이 된다. ‘V+個+沒+A’구문이 권유나 명령의 어기보다 결과의 의미에 편중된다거나, 이 구문의 형용사가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 비문이 생성된다. 그래서 ‘清楚’ ‘明白’ ‘舒服’ ‘高興’ 등과 같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형용사는 ‘飽’ ‘痛快’처럼 ‘V+個+沒+A’구문에서 비문이 된다.

‘V+個+它+A’는 강렬한 욕망이나 결심을 나타낼 때 쓰이고, ‘V+了+個+A’는 완료된 행위 동작이거나 이런 상황을 회상할 경우에 주로 쓰인다. ‘吃它個夠’는 충분히 맘껏 먹어야겠다는 결심이나 욕망을 나타내고, ‘吃了個夠’는 ‘충분히 먹었다’라는 먹는 행위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충분한 상태나 그러한 상황을 회고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구문형식 이외에 ‘V+起來+沒+A’의 의미는 어떤 행위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과거의 경험이나 추측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때 쓴다.

이 구문과 배합한 “够” “飽” “痛快” 가운데 “够”는 구문 형성이 자유로우나, “飽” “痛快”는 배합한 후 대부분 비문이 된다. 이러한 까닭은 “够”는 비행위자지향 형용사이나, “飽” “痛快”는 행위자지향 형용사인 것에 있다고 본다. 또한 “够”는 양의 개념에 가까운 반면, “痛快”는 양의 개념보단 심리상태이므로 “吃起來沒痛快”는 의미구조가 성립되지 않고, “吃起來痛快” “吃起來不痛快”는 가능하다.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예문 분석, 예문 검증, 논리 전개, 언어 현상의 계통성 등)은 차후에 다시 천착할 마음을 먹으며, 각 구문형식의 의미 차이와 언어 환경을 고려하여 만든 아래 대화 예문으로 서술을 마치려 한다.

李：老張，今天好容易聚在一起，咱們喝個夠。(오늘 가까스로 뭉쳤으니 진탕 마셔보자)

張：對，一定喝個痛快。(화끈하게 마시는 거야)

(喝完酒以后)

李：老張喝夠了嗎？如果沒喝夠，再換個地方喝。(충분해? 부족하면 이차 가자)

張：今天喝得夠多了。我們見面，總是喝個沒夠，每次都喝醉了。(충분해~~만나기만 하면 끝없이 마셔서 끈드레가 되잖아)

李：是啊，今天我也喝了個夠。你看，我們倆喝了四瓶，真不少了。(그래, 나도 이제 취했어 적잖이 4병이나 마셨잖아)

(兩人分手時)

張：我看，你今天喝得不夠，下次我請你喝酒，一定讓你喝個夠!(음, 너 충분히 마시지 못 했으면 다음에 코가 비뚤어지게 해주지)

## 5. 결 론

“V+個+A” 구문구조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중국인과 검증 과정도 거쳐 봤지만, 각 구문이 쓰이는 언어 상황 설정과 통일된 계통성을 찾

기가 애매하였다. “個”의 문법적 자질에서 “V+個+N” 구문의 “個”를 “個1” “個2”로 나누어, 量詞와 非量詞로 명명한 李煒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밝히지 못한 정확한 분류 기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미 이루어진 기존 글을 정리하여 “個”와 “得”의 차이를 비교하여 6 가지로 기술하였다. “V+個+A” 구문구조의 유형을 서술하면서 각 “V+個+A” 구문형식의 의미 차이를 인과관계,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판단, 적극적 의미, 量개념과 심리개념 등으로 비문이 되는 이유와 구문생성불가 등을 서술했는데, 앞으로 보충해야 할 문제이다. “V+個+沒+A”와 유사한 “叫個不休” “下個不停” “看個不厭” “笑個不了”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문에서 “沒” “不” 부정소와 다른 구문과의 결합과 의미 문제, “V+得+個+X”의 문제는 차후에 다루려 한다.

### 【參考文獻】

- 郭紹虞(1979)《漢語語法修辭新探》北京：商務印書館。  
 邵敬敏(1984)〈“動+個+形/動”結構分析〉《漢語學習》《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1992)》에 收錄。  
 呂叔湘(1980)《現代漢語八百詞》北京：商務印書館。  
 呂叔湘《漢語語法修辭新探》北京：商務印書館 呂叔湘(1984)〈個字的應用範圍，一〉《漢語語法論文集》北京：商務印書館。  
 王力(1980)《中國漢語語法》北京：中華書局。  
 游汝杰(1983)〈補語標志“個”和“得”〉《漢語學習》《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1992)》에 收錄。  
 李煒(1992)〈“V個結構”〉《語法研究和探索6》에 收錄。  
 張先亮(1998)《理論語法研究與比較》杭州：浙江教育出版社。  
 朱德熙(1982)《漢語語法修辭新探》北京：商務印書館。  
 語法研究和探索(1992)北京：語文出版社。  
 現代漢語補語研究資料(1992)北京：北京語言學院出版社。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 (1981) 박종한 등 역《표준중국어문법》(1999) 서울：한울아카데미。